

광주인문스토리플랫폼구축과 교육적활용전략

김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hyeon@aks.ac.kr



이 저작물(PPT)의 인용 표시 방법:
김현, "광주 인문스토리 플랫폼 구축과 교육적 활용 전략",
2024. 3. 30. (사)대동문화재단

'광주 인문스토리 플랫폼'의 개념

※ 광주 문화예술 인문스토리:

- 광주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사실적 이야기
- 광주시민들의 추억과 감성이 어우러진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그것의 시간적·공간적·인적 맥락에 관한 지식 정보

※ 스토리 플랫폼:

- 스토리텔링의 재료가 될 지식 정보 데이터, 디지털 어셋 및 그것을 활용한 창작물의 개방적인 유통 환경
- 디지털 문화 콘텐츠의 프로슈밍(Prosuming) 환경: 소비자(Consumer)는 이 플랫폼 상에서 공공사업에 의해 구축된 기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신의 디지털 스토리를 만들면서, 이를 위해 새로운 지식을 발굴하고 디지털 어셋을 제작하는 생산자(Producer)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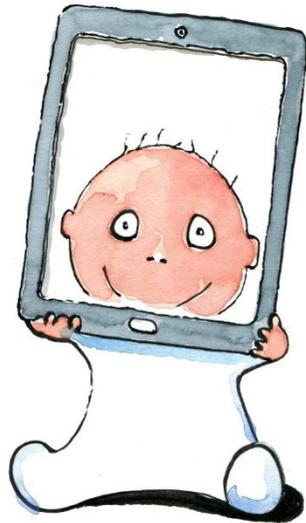
광주 문화예술 인문스토리 플랫폼 =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 메타버스 + 인공지능



왜? 광주 문화예술 인문스토리 플랫폼의 고객은 디지털 원어민

※ 디지털 원어민(Digital Natives):

- 어렸을 때부터 디지털 정보 환경에서 자라온 세대. '컴퓨터, 휴대폰 및 소셜 미디어와 같은 장치와 플랫폼을 통해 디지털 정보와 자극을 빠르고 편안하게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
- '단일 대상에 대해 집중하는 시간'이 이전 세대보다 현저하게 짧다는 특징을 보이며, '디지털 게임', '유튜브 영상'처럼 즉각적인 만족이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형태의 콘텐츠를 선호.



광주 문화예술 인문스토리 플랫폼의 구성 요소

※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Semantic Data Archive)**: 대상 객체의 개별적인 속성 정보뿐 아니라 객체와 객체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로 기록함으로써, 대상 정보의 의미적 맥락을 표시할 수 있게 한 데이터베이스.

- 인문학 교육·연구 활동으로서의 인문지식 디지털 큐레이션의 산출물이자, 새로운 교육과 연구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지식 공유 환경

※ **메타버스(Metaverse)**: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체험하며, 교류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가상 세계

- '공급자' → '소비자'의 단방향 세계가 아니라 '체험하고 교류하고 생산하는 프로슈머(Prosumer: Producer+Consumer)들에 의해 진화하는 쌍방향 세계' 또는 '그러한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열린 가능성의 공간(플랫폼)'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의 지적, 언어적 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만들어진 데이터 기반 소프트웨어.

- 반복적이고 데이터 양이 방대한 작업을 대신함으로써, 인간이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활동에 더 깊이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촉진자 역할을 한다.

광주 문화예술 인문스토리 플랫폼의 제작/활용(prosuming)방법

※ 디지털 큐레이션(Digital Curation):

- 대상 사물이나 자료를 독립적으로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물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관한 지식을 디지털 데이터로 연계하여 이야기 속에서 대상물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 기반의 전시 기획 방법.
- 데이터베이스 속의 정보를 조합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정, 확장 하는 것이 가능.

※ 디지털 스토리텔링(Digital Storytelling):

-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디지털 어셋(텍스트, 이미지, 영상, 3D 모델 등)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행위.
- 디지털 원어민은 '의미 있는' 데이터의 세계에서 자신의 흥밋거리를 발견하고, 호기심을 키워가며,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방법으로 세상에 대해 공부하고 자신의 주체적인 지식 세계를 구축.

'시맨틱 데이터'와 '스토리 데이터'



※ 시맨틱 데이터 (Semantic Data):

- 광주 문화예술의 세계를 객관적 사실로 서술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 스토리 데이터 (Story Data):

- 광주 문화예술의 세계를 '주제과 줄거리'가 있는 '이야기'로 서술하는 데이터

시맨틱 데이터: 핵심항목과 문맥항목



❖ 핵심항목

※ **핵심항목:** 광주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에 관한 핵심 지식 정보

- 해설, 메타데이터, 관련 웹자원 URL, 이미지 데이터 등으로 구성
- 핵심항목의 해설 데이터는 '광주'와 관련한 역사적·문화적 함의를 담아낼 수 있도록 광주 지역문화 전문가들이 기초 데이터를 생산하고, 디지털인문학 연구원이 이것을 시맨틱 데이터로 편찬하는 방식으로 생산.

❖ 문맥항목

※ **문맥항목:** '○○' 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련 지식 요소 및 근거자료

- 인물, 사건, 장소, 제도, 물품, 문헌, 개념·용어 등의 해설과 메타데이터
- 문맥항목의 해설 데이터는 초·중등학교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략하게 작성하되, 보다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바로 연결하여 볼 수 있도록 함.

스토리 데이터: 시맨틱 데이터 기반 디지털 스토리텔링

❖ 디지털 시민 문화 콘텐츠' 생산을 촉진시킬 '지역화 교육' 스토리 콘텐츠

※ 지역화 교육 스토리텔링 항목 → '광주 지역화 교육' 스토리 콘텐츠

- 우리 고장의 역사·문화 이야기 디지털 스토리텔링.
- 유물·유적·인물·사건·문헌 등 관련 항목 연계 정보 포함
-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교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화 교육'의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상 교실' 및 '지역화 교과서'로 활용

❖ '광주'를 세계에 알릴 '해외 한국학 교육' 스토리 콘텐츠

※ 해외한국학 교재 스토리텔링 항목 → 해외 대학의 가상 한국학 교실

- 광주의 문화를 소개하는 대표 스토리를 디지털 큐레이션의 방법으로 편성하고, 이를 외국어로 번역
- 문화유산·인물·사건·문헌 등 관련항목의 제목 및 요약 정보의 외국어 번역 포함 → 향후 인공지능(기계번역)과 클라우드 소싱(교열/검증)에 의해 외국어 번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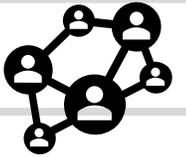
디지털 스토리텔링 메타버스



※ 디지털 스토리텔링 메타버스

- 고객(디지털 원어민)이 광주 문화예술에 대해 배울 뿐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상 환경 '스토리 노드'에서 새로운 이야기의 영감을 얻고, '시맨틱 노드'의 텍스트와 멀티미디어 어셋을 재로로 삼아 자신의 3D 스토리텔링을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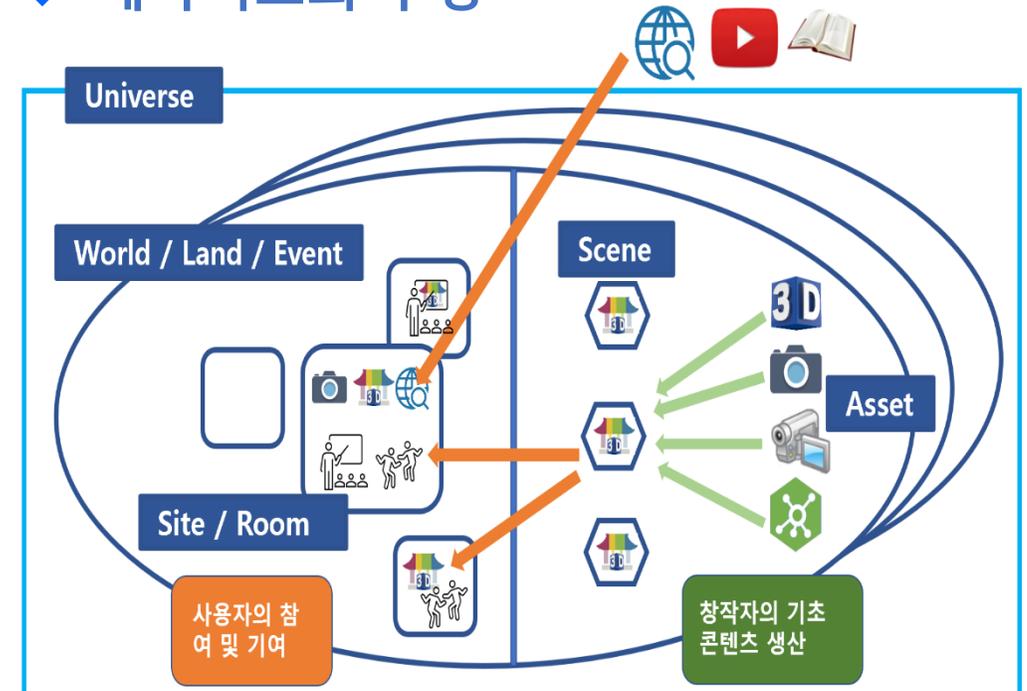
광주 인문스토리 메타버스 구현 전략



※ 광주 인문스토리 메타버스 운영을 위한 '어셋'과 '씬' 제작

- **어셋(Asset):** 메타버스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안에 등록해 놓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
- **씬(Scene):** 특정 주제에 따라 미리 만들어 놓은 '재사용 가능(Reusable) 3D 공간 패키지'. 거리, 마을, 도시 등의 열린 공간이나 교실, 세미나실, 박물관 전시실, 콘서트 홀과 같은 실내 공간을 연출하고, 메타버스 방문자들이 그 주제의 콘텐츠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함.

❖ 메타버스의 구성



※ 메타버스의 이용자들은 새로운 가상공간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어 넣는 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다. 플랫폼 개발자의 역할은 그 같은 사용자 활동이 용이하게 촉진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콘텐츠 부품(또는 반제품)을 '메타버스 씬'이나 재사용가능한 '디지털 어셋'의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

인공지능: 디지털 스토리텔러



※ 인공지능과 함께 만드는 '광주 이야기'

- **AI 스토리텔러:** 이용자의 관심에 따라 선택된 소재를 이야기로 엮어주는 인공지능 고객(디지털 원어민)은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이야기 소재를 더 넓게, 더 깊이 탐구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인공지능: 디지털 스토리텔러



S2023-X01d:광주 제중병원의 사람들

한 때 광주에는 제중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서양 의료 기관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광주의 첫 서양 의료 기관으로, 조셉 놀란이라는 미국인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놀란은 제중병원의 첫 원장으로서, 그의 리더십 아래 병원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제중원 원장직을 사직하고 운산금광의 주치의로 전직하게 됩니다. 이 금광은 평안북도 운산군에 있었던 우리나라 제1의 금광으로, 동양합동광업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제중병원은 광주 3.1운동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이로 인해 병원은 운동의 중요한 지지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북문안교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양림교회의 이칭으로 1012년부터 1919년까지 사용되었으며, 제중병원과는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였습니다.

제중병원에는 여러 중요 인물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서서평은 광주 지역에서 봉사한 간호사로, 제중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녀는 우일선이라는 미국인 선교사의 간호사로도 일했으며, 우일선은 제중병원의 2대 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우일선은 1908년부터 1948년까지 한국에서 선교와 의료, 교육을 위해 공헌한 인물입니다.

시간이 흘러 제중병원은 광주기독교병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병원은 제중병원의 후신으로, 제중병원의 정신과 목표를 이어받아 광주 지역 사회에 계속해서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중병원과 그에 속한 사람들은 광주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은 의료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 운동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오늘날 광주기독병원을 통해 그들의 유산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The above narrative was generated by ChatGPT
 Gpt Model: gpt-4-turbo-preview
 Temperature: 0.8 / Top_p: 0.9 / Max_tokens=2048
 Semantic Data Curation: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